

'열심히 배워서 남 주자'

전주대학생들, 전공 살려 지역사회 공헌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워서 남 주는 것도 능력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전주대는 배워서 남 주는 능력,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서비스 러닝(Service Learning)은 전공 학습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유대를 통해 지역교육공동체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1학기 동안 총 8개 학과 20개 팀이 참여해 도내 청소년 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등 총 26개의 도내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자신이 배운 전공 지식으로 각 기관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스마트미디어학과 학생들은 공공시설 불법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아두이노 흡연 경보기를 개발하고,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코딩과 드론, VR, 3D 홀로그램 제작 및 어플 개발 등을 교육했다.

교육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코딩 블록게임, 로봇축구게임, VR게임 등을 활용해 큰 호응을 받았다.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은 기능과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 고창생태학습체험관과 전북해화학고 건물과 내부를 설계하고, '효승이'라는 효치문화의집의 캐릭터를 소개했다.

패션산업학과 학생들은 최근 유행하는 패션아이템에 볼래카메라 감지 기능을 입히고, 심버세대를 위해 발열, 위험감지, 위치 추적이 되는 IoT 기능성 신발을 개발해 선보였다. 한동욱 단장(스마트미디어학과)은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전공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전공의 지식을 내재화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서비스러닝을 비롯해 평생교육 지원, 사회봉사, 리빙랩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 특수교육지원단 저경력 교사 역량강화 추진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특수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지원단과 신규·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강화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특수교사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수업지원, 생활지도, 전환교육, 통합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14~15일 이틀간 왕의지빌에서 특수교육지원단, 현장교사(행동동행+신규저경력), 특수교육담당 등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수교사의 자질함양과 수업혁신을 통한 교원의 수업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행동관리, 학급운영, 학부모와의 협력을 통한 생활지도 강화, 각종 교수학습자원을 통한 전환교육 활성화, 교원의 자율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멘토-멘티 교사 동행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4일은 관계맞기 유형과 훈련, 산배와 후배교사의 만남, 컨설팅 사례공유 등이 이어졌으며, 15일에는 특수교육지원단을 대상으로 박미경 교사(서울연북중)의 '장애학생의 긍정적 행동지원 특강'과, 신규·저경력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송준호 교수(우석대)의 '소통으로 이끄는 글쓰기 특강'이 진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지원단과 신규·저경력 교사와의 정서적 지원체제를 마련해 특수교육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최근 영국 센트럴랭커셔대학 학생들을 초청해 글로벌리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문화권의 경계 넘어 글로벌 리더로!

전북대, 영국리더양성기관 주관 프로그램 운영 · 문화적지능개발지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최근 영국 센트럴랭커셔대학 학생들을 초청해 글로벌리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영국의 글로벌리더 양성 기관인 'Common Purpose'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전북대가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결합시켜 다채롭게 운영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권의 경계를 넘어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인 '문화적 지능(Cultural Intelligence)'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영국 학생 2명과 전북대 학생 16명 등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전주 팜북예술공장을 방문해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전주에 대한 소개를 듣고,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의 덕목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로스알라모스-전북대한국공학연구소,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전북대병원, 국립축산과학원, 전북은행 본점, 전북소방안전본부, 소리문화의전당,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각 기관의 주요 사업과 과학기술로 인한 효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14일에는 최종 평가위원들에게 팀별 발표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점을 제시하며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장길 사무국장과 전북교육청 정병익 부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전주의 문화사업과 리더십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고,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박성용 정책실장은 최종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동현 국제협력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대학 학생과 센트럴랭커셔대학이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바란다"며, "전북대학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향후에도 여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SW교육 아카데미' 진행

전북교육연구정보원(원장 김갑식)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SW교육 강화에 나섰다.

14일 연구정보원에 따르면 학생들의 생각을 키우고 미래형 인재로 길러내기 위한 '상반기 SW교육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중 신청을 통해 선발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80명과 학부모 60명 등 총 1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지난 15일과 오는 22일,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우선 학생 대상 교육은 SW 메이커(기본·중급), 피지컬컴퓨터(기본·중급) 등 4개 반으로 나눠 소프트웨어 만나기, 보드게임으로 만나는 소프트웨어, EV3 알아보기, EV3 센서 및 모터 알아보기 등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학생의 경우 총 교육시간의 80%(12시간 이상)를 이수하면 수료증을 수

여한다. 이와 함께 SW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긍정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부모 대상 교육도 마련된다.

15일과 22일 각각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체험교실에서는 오토마타 이해 및 제작, 아두이노 보드 이해와 회로 구성하기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이와 더불어 오는 29일에는 초등 1~3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SW교육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갑식 원장은 "SW교육 아카데미는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다양한 SW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SW교육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학생들의 창의적 공학설계 작품 만나다

진수당 일원서 19일 캡스톤디자인 대회 개최... 육선마켓도 운영

전북대학교는 학생들의 창의적 공학설계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오는 19일 진수당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든 190여점의 캡스톤디자인(창의적 공학설계) 작품이 산업체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시되며, 학생 아이디어가 기업체에 이전되는 '캡스톤디자인 육선마켓'도 함께 운영된다.

작품은 부스별로 전시되며,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과 특별공연, 경품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는 최용석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이 '디지털라이프 시대의 미래교육과 직업'이라는 주제로 특강도 펼친다.

고영호 LINC+사업단장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자기개발 능력 및 창의적 역량 향상과 대학과 지역의 산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융합의 장"이라며, "다양한 전공 학생들과 기업체 등이 모이는 만큼 좋은 정보가 교류되고, 학생들의 자신감도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창업 지원 장학금 5억 7천만원 지급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창업 경험을 쌓기 위해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주대 창업지원단은 지난 13일 공학관 해동학술정보실에서 '2019년 1학기 창업 마일리지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창업지원단은 교내외의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청년 창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창업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7년 동안 총 775명의 학생들에게 5억 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재학생들은 본인이 경험한 창업과 참여한 프로그램(창업, 특허, 창업강좌, 동아리, 창업경진대회 등)을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고, 평가항목에 맞춰 창업 마일리지를 부여받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로는 창업 장학금으로 신청해 새로운 창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다.

김재은(패션산업학과 2학년)학생은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하며 창업활동을 할 수 있어 좋았다"며 "막대한 창업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효진 창업혁신센터장은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미래의 스타창업가를 양성하고, 앞으로도 창업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